

2015 8. 23 연중 제 21 주일

제 1 독서 : 여호수아 24,1-2 7.15-17.18 나그 <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

제 2 독서 : 에 페 소 5,21 - 32 <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는 큰 신비입니다. >

복 음 : 요 한 6,60 - 69 <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부부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부관계는 연애 할 때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기쁘게 해 주고 그러다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부부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오늘 제 1 독서와 복음말씀을 대하면서 아주 명확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택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떠나겠느냐? 제가 이 공동체에 12 여년을 있으면서 어느 한 주일도 빠지를 않고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강론을 준비하고 미사에 임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강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구약부터 묵시록까지 읽어서 그 내용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론 역시 1 독서부터 복음말씀이 끝날때까지 계속 이어서 들어야만 그날 강론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자기 주장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저의 강론에서도 최근에는 못듣지만, 전에는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론을 드리는 것은 어느누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어느 누구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강론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상대로 강론을 한다면 그 신부는 신부자격이 없습니다. 목자는 모든 양떼를 바라보고 그 양떼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면 내 주장을 죽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또한 예수님을 선택 하였다면 나의 체면과 욕심과 주장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느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친교 공동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들면 안 나옵니다. 왜냐? 바로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내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도 내 중심이 아니고, 공동체도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맘에 안들면 다른 곳으로 떠나 갑니다. 또 내 공동체의 이웃이 맘에 안들면 안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한국 공동체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십시요. 이 공동체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사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공동체를 떠나십시요. 우리 공동체는 친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한 공동체 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디다. 그렇지만 열두제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는지가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선택하십시요. 저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공동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면 모든 자존심과 또 개인 감정을 내려 놓으십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구원의 하느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밝혀 주셨으니,
성령의 빛으로 이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이끄시어,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샘이신 하느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24,1-2 7.15-17.18 ㄴ ㄷ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켄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4(33),2-3.16-17.18-19.20-21.22-23(◎ 9 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짓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값을 벗으리라.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는 큰 신비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21-32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성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60-69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